

# 광주 여자양궁 3인방 태극마크 '명중'

### 안산·최미선·기보배 국가대표 선발...남자부 남구청 이승윤도 다음달 두차례 순위 평가전 거쳐 남녀 상위 1~4위 항저우 직행

기보배(광주시청), 최미선(광주은행 테넨양궁단), 안산(광주여대)이 2023 여자 양궁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광주부 남구청 이승윤은 남자부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다.

기보배는 지난 24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막을 내린 2023년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 리커브 여자부에서 종합 배점 37.5점, 평균 기록 28.17점으로 종합순위 8위에 오르며 국가대표 8명 중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보배는 전남 12위에 그쳐 태극마크가 멀어진 듯 보였으나 마지막 날 3회 차 기록경기(70m 3발, 5세트)에서 148점을 쏘는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9위 이기현과 배점 37.5점 동점을 이뤘으나 평균기록에서 0.6점 앞섰다.

기보배는 런던올림픽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관

왕에 올랐고,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는 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뒤 6년만에 국가대표에 복귀했다. 2017년 결혼 후 출산하며 국가대표팀과는 멀어졌지만 계속 현역 생활을 이어왔고, 결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에 대표팀에 합류했다.

기보배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경기라 생각해 마지막 한발까지 최선을 다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라는 마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항저우에 출전하면 양궁 그랜드 슬램에 도전하게 된다. 올림픽, 세계 선수권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그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손에 넣게되면 양궁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양궁 그랜드 슬램은 대한민국에서는 박성현이 보유한 유일한 기록이다.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지난 24일 열린 2023년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확정된 기보배(왼쪽부터), 이승윤, 안산, 최미선.

기보배는 "마음으로만 간직했던 양궁 그랜드 슬램의 꿈을 다시 꾸게 됐다. 남은 순위평가전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가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양궁 월드컵 파이널에서 세계 여자양궁 양궁왕에 오른 안산은 3위를 차지했다. 안산은 "동계훈련을 열심히 한 결과로 좋은 성적

이 나온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치열한 승부를 앞두고 남은 기간 좋은 경기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여자부 4위로 광주은행 테넨양궁단 창단 3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안긴 최미선은 "100%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다소 아쉽다"며 "순위 평가전에서는 100% 제 실력을 발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자부에선 이승윤(남구청)이 6위로 태극마크를 사수했다.

이승윤은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했다. 아시안게임 출전이라는 남은 목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긴장을 풀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의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궁사 16명은 다음달 3~7일 인천, 17~21일 원주에서 두 차례 순위 평가전을 진행, 1~8위까지 순위를 가린다. 남녀 상위 1~4위 선수가 항저우행 주인공이 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충장베이스볼클럽, 대신육가공회장배 우승

충장베이스볼클럽(충장BC)이 제10회 대신육가공회장배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충장BC는 지난 25일 고창생활야구경기장에서 진행된 중학교 야구대회 결승에서 진흥중을 14-5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진흥중, 동성중, 광주BC(이상 A조), 충장BC, 무등BC, GJ스타즈BC(이상 B조) 등 6개 팀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대결을 벌였다.

충장BC는 첫 경기에서 무등BC에 2-3으로 졌

지만 둘째날 GJ스타즈BC와 경기에서 8-0, 5회 풀드게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동성중과의 준결승전에서 15-7 승리를 거둔 충장BC는 진흥중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승자가 되면서 우승팀이 됐다.

충장BC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대회를 겸해 열린 이번 대회 우승으로 오는 5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 대표 자격도 얻었다. 코로나19로 소년체전 예선이 열리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4년 연속 광주 대표 선발이다.

한편 제10회 광주센트럴병원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 겸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대회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점당야구장에서 5일간 리그전으로 진행된다.

#### ◇대회 시상 내역

- ▲최우수선수상 : 장우찬(충장BC) ▲우수투수상 : 박서준(충장BC) ▲타격상 노현승(12타수 8안타 0.667·진흥중) ▲최다투루상 : 김지환(4개·충장BC) ▲최다타점상 : 노현승(6타점·진흥중) ▲감투상 : 임선우(진흥중) ▲미기상 : 김선빈(충장BC) ▲감독상 : 나길남 감독(충장BC) ▲지도상 : 박우석 코치(충장BC)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충장베이스볼클럽이 제10회 대신육가공회장배 중학교 야구대회 겸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대회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광주도시공사 에이스 강경민이 26일 충북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서울시청과 경기에서 슛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 한국 '피겨의 봄'

### 차준환 남자 첫 세계선수권 은메달...이해인도 은 '남녀 동반 입상'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다.

차준환은 25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린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96.39점을 획득, 쇼트프로그램에서 받은 99.64점을 더해 총점 296.03점으로 최종 2위에 올랐다.

한국 남자 싱글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인(세화여고)이 이번 대회 여자 싱글 2위로 2013년 우승자인 김연아(은퇴) 이후 10년 만에 세계선수권 메달을 따낸 데 이어, 차준환까지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 선수들은 세계선수권에서 처음으로 '남녀 동반 입상'까지 이뤄냈다.

특히 차준환은 지난해 이 대회를 치르다 부츠가 망가지면서 기권해야 했는데, 아쉬움을 털고 1년 만에 웃으며 시상대에 올랐다.

차준환은 한국 피겨 남자 싱글에선 이미 수많은

'최초'와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다. 아역배우로도 활동하다 초등학교 때 피겨에 입문한 그는 주니어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2016-2017시즌 한국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한 시즌에 두 차례 주니어 그랑프리 메달을 획득했고,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도 역시 최초로 메달(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니어 무대를 밟은 뒤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까지 부상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남자 싱글에 출전한 선수 중 최연소의 나이로 은반에 섰고,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사상 올림픽 최고 순위인 15위를 차지했다. 기세를 이어 2018-2019시즌 한국 남자 첫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과 동메달 획득에 성공하며 한국 피겨 역사에 다시 한번 굵직한 자취를 남겼다.

/연합뉴스



차준환이 2023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16초 못 버텨...광주도시공사 아쉬운 무승부

### 핸드볼리그 서울시청과 24-24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후반 종료전 16초를 버티지 못해 승리를 눈 앞에서 놓쳤다.

광주도시공사는 26일 충북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서울시청과 경기에서 24-24(12-14, 12-10),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리그 5위 서울시청을 상대로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그쳐 시즌 12승 3무 3패(승점 26)를 기록, 1위 탈환에 실패했다.

최근 2연패에서 벗어났으나 1위 삼척 시청에 승점 2점차로 2위에 머물렀고 3위 SK슈가글라이더즈에는 승점 1점차로 쫓기고 있다.

이날 김수민(7골), 강경민(6골 7어시스트), 김지현(6골 1어시스트) 등 3명이 모두 17골을 합작하는 활약을 펼쳤다.

박조은은 서울시청의 슛 20개를 막아내 방어율 48.8%를 찍으며 경기 MVP에 선정됐다.

광주도시공사 정현희는 언니인 서울시청 골키퍼 정진희를 상대로 모두 4개 슛을 던져 2개를 넣었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 13분께 강경민이 김수민의 어시스트를 팔로 연결해 8-6으로 2점차 리드를 잡았으나 김수민과 정현희의 슛이 잇따라 서울시청 골키퍼 정진희에게 막혀 고전했다. 이후 서울시청 송지열과 윤예진에게 잇따라 골을 내주고 8-8 동점을 허용했다. 상승세를 탄 서울시청은 우윳나와 조아라의 연속 골로 8-10 두점차로 앞서 나갔다. 광주도시공사는 이후 뚜렷한 반격 기회를 잡지 못하고 12-14로 전반전을 마쳤다.

승부의 하이라이트는 후반 27분이었다. 광주도시공사는 김지현의 9m 골로 23-23, 동점을 만든 뒤 28분께 정현희가 6m 돌파슛으로 골문을 열어 24-23으로 앞섰다.

하지만 후반 29분44초에 서울시청 우윳나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고개를 떨궜다.

광주도시공사는 원선필(피봇)과 서아루(레프트 윙)의 부상공백에도 고전하고 있다.

시즌 개막 후 13경기 무패를 기록했던 광주도시공사는 주전들이 부상으로 출장하지 않은 7경기에서 3승 3패 1무를 기록하는 등 전력이 하락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충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즈메의 문단속
- 스즈메의 문단속, 플레인
- 더 퍼스트 슬램덩크
- 웅남이, 팔로우즈
- 스즈메의 문단속, 꼬마돼지 베이브의 바다 대모험
- 웅남이, 포커페이스
- 소울메이트
- 씨네커플 모나리자와 블러드 문, 탐, 사침 신들의 분노
- 씨네커플 더 퍼스트 슬램덩크, 소울메이트, 파벨만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3-01(수) ~ 2023-03-31(금)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BALLET CURATION**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 발레상품콘서트 II  
**<단원안무전 Ballet Curation>**  
 일시 : 2023-03-31(금) 19:30  
 2023-04-01(토) 15:0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